

번역서 『1984』 앞표지에 재현된 정보 유형과 구성 분석

이 경 희
(동국대-서울)

1. 서론

독자가 번역서의 본문을 읽기 전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책표지는 파라텍스트(paratext)의 한 요소로 독자의 선택과 텍스트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턱(threshold)”(Genette 1997; Batchelor 2018)이 되는 공간이며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의미가 형성된다. 먼저 책표지는 해당 텍스트와 관련된 주요 정보 의미를 전달하는데, 제목, 작가, 번역가, 출판사 등 텍스트 창작과 발행 주체에 대한 정보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정보(Sonzogni 2011), 텍스트 장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Dixon and Bortolussi 2005; Dixon, Bortolussi and Mullins 2015). 또한, 책표지는 목표 문화권에서 원작이 소개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보여주며(이지영 2016; 지영래와 박선희 2010; Alvstad 2012; O’Sullivan 2005; Torres-Simón 2021), 수용 문화권에서 작용한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성승은 외 2022; Watts 2000). 나아가 책표지 구성은 마케팅 요소로도 작용한다(Mossop 2018).

이처럼 번역서 표지는 목표 문화권에서 텍스트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 의미는 물론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부가적 의미가 형성되어 독자의 선택과 수용 방

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한 작품이 여러 번역가와 출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발행된 경우 시기별로 다양한 표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지 구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시적 연구(박윤우와 이상빈 2023)는 많지 않으며 구성 항목, 구성의 시각적 특성 등 표지 구성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보 제공이라는 책표지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 (Nineteen Eighty-Four)』 한국어 번역서 앞표지에 재현된 정보 의미 유형과 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 구성 방법의 시기별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서 표지 구성은 발행 당시의 번역 상황,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시적 고찰을 통해 표지 구성의 변화와 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여 시기별 작품의 수용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는 가상의 전체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암울한 사회를 그린 작품으로 《타임》 선정 현대 100대 영문소설, 《뉴욕타임즈》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등 다양한 추천서 목록에 속하고, 특정 사건 발생이나 세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작가와 작품이 재조명되는 영국 문학의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국내 신문에서도 원작이 발행된 1949년 이 작품을 소개할 만큼 관심을 모았고, 1951년 <문예서림>에서 첫 번역서 『1984年』이 발행된 이후 여러 번역가와 출판사를 통해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문고에서 제공하는 영미장편소설 분야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등 한국 독자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는 작품이지만 관련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아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2022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및 인터넷 문고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한 66종 번역서 중 표지가 소실되거나 의미가 재현되지 않은 표지를 제외한 62종의 앞표지이다.

앞표지에는 저자 이름과 사진이나 그림, 번역가 이름, 장르, 출판사 이름이나 로고, 총서(series) 이름, 판(版)이나쇄(刷), 일러스트 등 다양한 정보 항목이 제시될 수 있는데(Genette 1997: 24), 본 연구에서는 원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필수 요소이며 정체성과 저작권 소유주체 정보를 명시하는 작품명(제목), 저자명, 번역가명, 출판사명과 그 외에 저

자와 작품에 대한 설명, 번역가나 판본에 대한 설명 등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가정보 항목으로 분류하여 시기별 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파라텍스트의 개념과 책표지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번역서 『1984』 앞표지에 재현된 정보 유형과 구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파라텍스트와 책표지

2.1 파라텍스트의 정의 및 기능

파라텍스트(paratext)는 대중과 의사소통하고 텍스트의 수용과 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본문 외 책표지, 서문, 광고, 서평 등 책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잠재 독자가 책 안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문턱(threshold)”이 되는 공간이다 (Genette 1997: 2). 주네트는 파라텍스트의 공간적 위치를 기반으로 페리텍스트(peritext)와 에피텍스트(epitext)로 구분하며, 페리텍스트는 표지, 제목, 서문, 띠지 광고, 저자 이름, 번역자 이름, 출판사 이름, 저자 논평, 평론, 삽화, 각주 등 책 내부에 위치하는 요소, 에피텍스트는 광고, 홍보 책자, 기사, 인터뷰, 뉴스 등 책 외부에 위치하는 요소이다.

파라텍스트 관련 연구의 편저자 펠라트는 물건을 보호하고 있는 포장과 포장을 벗기면 드러내는 내용물에 비유하면서, 파라텍스트를 “핵심 텍스트(core text)”를 둘러싸고 보조하는 텍스트, 핵심 텍스트에 추가된 자료나 외부에 있는 모든 자료로 정의한다(Pellatt 2013: 1-2). 또한, 바첼러는 주네트의 파라텍스트 개념에 대해 대체 용어를 제시한 연구(Harvey 2003; Susam-Sarajeva 2006)와 번역을 원작의 파라텍스트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Tahir Gürçağlar 2002)이 있지만, 파라텍스트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고 이 용어를 기반으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의 장점을 들면서 파라텍스트를 “텍스트 수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턱(threshold)”으로 정의하였다 (Batchelor 2018: 142). 여기서 텍스트는 문학, 영화, 신문 등 여러 유형이 될 수 있고 원작은 물론 번역서도 자체적으로 파라텍스트를 지닌 텍스트에 포함된다.

국내 연구에서 파라텍스트 용어에 대한 번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영래와 박선희(2010)에서는 원작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네트의 견해를 보완하고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원작과 번역서에서 파라텍스트의 위상이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파라텍스트가 번역 평가와 독자의 선택에 기준이 될 수 있고 원작이 목표 문화권에 소개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지영(2016)에서도 파라텍스트는 원작뿐 아니라 번역서에서도 문학작품의 내러티브 프레이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문 텍스트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장치가 됨을 확인하였다. 텍스트 수용 및 해석 방향과 관련하여 오설리반(O'Sullivan 2005)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 소설의 영어 번역에서 원래 표지 디자인을 이탈리아 이미지로 대체하여 이야기의 초점이 이탈리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였고, 토레스 시몬(Torres-Simón 2021)에서는 원작 문화권의 이미지가 파라텍스트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독자의 기대를 충족하고 충돌을 피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파라텍스트 구성을 이데올로기 투영 관점에서 살펴본 와츠(Watts 2000)는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었는지, 즉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고, 성승은 외(2022)에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 문화의 맥락에 따라 해당 이데올로기가 파라텍스트에 반영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파라텍스트는 원작과 원천 문화가 목표 문화에 수용되는 번역 과정의 결과이며(Alvstad 2012), 원작뿐 아니라 번역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본문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 작품이 특정 문화권에 수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독자들의 해석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파라텍스트 생산 및 의사결정에 관련될 수 있는 주체는 번역가, 편집자, 출판사, 일러스트 작가 등으로 다양하며, 파라텍스트 사용 방식은 텍스트 장르, 발행 시기, 대상 독자,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목표 문화와 사회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2.2 책표지의 기능

책표지 구성은 “원천텍스트의 기호학적 요소를 변형시키는 번역의 한 형태”(Sonzogni 2011: 23)이며 책표지는 작가와 작품의 첫 이미지를 생성하는 공간이다. 책표지의 주요 기능은 정보 제공으로 제목, 저자, 번역가, 출판사 등 텍스트 생산과 관련된 주체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와 그림을 통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며, 독자가 해당 텍스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킨다(Sonzogni 2011: 16). 책표지는 본문 텍스트의 “내용, 분위기, 배경”(Salmani and Eghtesadi 2015: 1186)을 전달할 수 있어, 이야기 주제와 일관된 표지 구성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마승혜와 김순영 2022). 특히 제목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접근 방식과 해당 텍스트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턱(threshold)”이다(Maclean 1991: 275).

또한, 책표지에는 목표 문화의 출판 시장, 출판사의 의견 및 관심사, 저자와 작품의 인지도, 독자 등 여러 시스템과 주체들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될 수 있다. 살마니와 에그테사디(Salmani and Eghtesadi 2015)에서는 표지 디자인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표지에 제시할 요소나 순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출판사이며, 문화, 텍스트의 주제, 장르 등에 따라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리, 리와 미아오(Li, Li and Miao 2019)에서는 서구의 표지가 오리엔탈리즘을 강조하고 반마오주의(anti-Maoism)를 축소함으로써 독자의 선호도를 높였다고 주장하면서 표지에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강선(2019)에서는 한국 문학 『엄마를 부탁해』의 해외 번역서 표지를 분석하여 사회, 문화, 역사 등 여러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상빈(2021)에서는 국내의 젠더, 여성, 페미니즘 관련 번역서 표지의 파라텍스트 생산자들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책표지는 독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장치로도 작용한다. 책표지는 텍스트의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예술적 장치 및 마케팅 장치로 중요하게 작용한다(Mossop 2018). 모습은 책표지 구성을 분석하는 데는 개인적인 견해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표지는 책을 구매하는 일반 독자와 소통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연구자가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연구에 대한 가치를 설명했다. 잠재 독자의 선택 과정과 관련하여 리만스와

스토크만스(Leemans and Stokmans 1992)는 생활양식, 사회계층 등 간접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여 선택함을 보였고, 디아스투스, 콜버트와 엠버랙(d'Astous, Colbert and Mbarek 2006: 142)에서는 새로 출판된 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저자의 명성, 출판사의 명성, 책표지의 흡인력(attractiveness), 내용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책의 장르를 변수로 분석하여 앞의 세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서 표지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결과이며, 저자, 번역가, 출판사 등 텍스트 생산 주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인물, 사건, 배경 등 텍스트 내용 및 저자와 작품에 대한 평가, 장르 등 텍스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 문화권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여 작가와 작품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독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3.1 분석 대상 선정

분석 대상은 1949년 세커 앤드 워버그(Secker & Warburg) 출판사에서 발행한 조지 오웰의 소설 *Nineteen Eighty-Four*(1984)의 한국어 번역서 앞표지이다. 이 작품은 가상의 전체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빅브라더라는 독재자, 사상경찰, 텔레스크린 등을 통해 체제의 감시와 통제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원작 초판본은 양장본에 덧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장본 앞표지에는 일반적인 양장본 구성과 같이 제목이 없고(Genette 1988: 700), 덧표지에 <그림 1>과 같이 위에서부터 저자명, 가운데 크게 제목, 맨 아래 작품의 장르 정보를 제시하여 본문 텍스트가 허구의 이야기라는 작가의 의도를 제공하며 읽기의 방향을 안내한다(Genette 1997: 11).

<그림 1> 원작 초판 덧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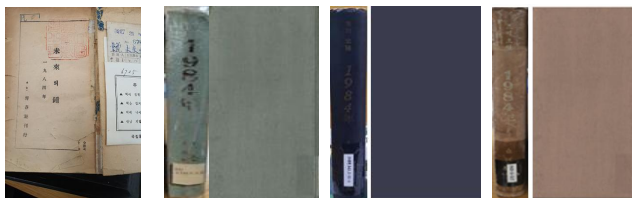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원작이 발행된 같은 해인 1949년 신문에 처음 소개되었고, 한국어 초판 번역은 1951년 <문예서림>에서 발행한 지영민 번역의 『1984年』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철 1998). 이후 1953년 <청춘사>에서 제목을 변경해 발행한 『未來의 鐘(미래의 종): 一九八四年』과 1957년 <정연사>에서 발행한 『1984年』이 있는데, 동일한 역자소기(譯者小記), 1950년 3월 15일이라는 동일한 번역일자, 동일한 본문 내용 등을 토대로 세 번역서는 동일한 번역본을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안미영 2012).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2022년 12월까지 인쇄 출판된 번역서를 검색하였고, 『동물농장』이나 『카탈로니아 찬가』 등 저자의 다른 작품 제목이 함께 제시된 번역서는 제외하고 『1984』가 단독으로 제시된 번역서 앞표지 이미지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교보문고, yes24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동일한 출판사에서 표지를 변경하여 발행한 경우 별개의 번역서로 집계하고, 동일한 표지로 ‘판(版)’이나 ‘쇄(刷)’를 달리하여 재발행된 번역서는 최초 발행 시기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수집한 번역서는 총 66종으로 1950년대 1종, 1960년대 2종, 1970년대 2종, 1980년대 8종, 1990년대 3종, 2000년대 7종, 2010년대 35종, 2020년대 8종이다.

수집한 번역서 66종 중 <그림 2>에서 제시한 4종을 제외하고 앞표지에 언어기호와 시각기호를 통해 의미가 재현된 62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그림 2> 1953년, 1968년, 1969년, 1975년 번역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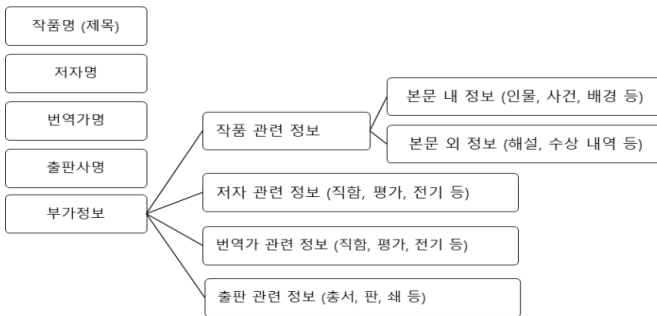
첫 번째 표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번역서로 1953년 발행된 『未來의 鐘: 一九八四年』의 속표지이며 겉표지는 소실된 채로 남아 있었다. 다음으로 오래된 번역서는 1968년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양장본 『1984年』이고 이후 1969년과 1975년에 동일한 출판사에서 본문 내용은 동

일하나 역자 소개 등 부가정보와 색깔이 다른 새로운 판(版)의 양장본이 발행되었다. 세 번역서 모두 일반적인 양장본 유형대로 앞표지에 제목이나 그림이 없고 책등에 제목과 저자, 번역가 정보가 제시되었고, 발행 당시 종이로 된 덧표지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3.2 분석 방법

앞표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앞표지에 재현되는 의미 항목을 <그림 3>과 같이 분류하였다. 텍스트 생산과 관련된 주체 정보, 텍스트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책표지의 기능을 기반으로(Sonzogni 2011), 원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작품명(제목), 저자명, 번역가명, 출판사명과 기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정보 항목으로 분류하여 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3> 앞표지에서 언어기호와 시각기호가 재현하는 정보 의미 항목



앞표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의미는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의 구성 방식을 통해 재현되므로 각 항목의 재현 여부와 구성의 특성을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작품명(제목): 재현 여부, 유형, 위치, 색
- 2) 저자명: 재현 여부, 유형, 번역가와와의 상대적 위치 및 크기
- 3) 번역가명: 재현 여부, 유형, 저자와의 상대적 위치 및 크기

- 4) 출판사명: 재현 여부, 위치
- 5) 부가정보: 재현 여부, 의미 유형,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일러스트)의 구성

4. 분석 결과

번역서 『1984』 앞표지에서 재현되는 정보 의미 항목인 제목, 저자명, 번역가명, 출판사명, 부가정보에 대한 시기별 출현 빈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앞표지에 재현된 의미 항목과 출현 빈도 (백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발행시기 (권수)	제목	저자명	번역가명	출판사명	부가정보
1970~1979 (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980~1989 (8)	8 (100%)	8 (100%)	6 (75%)	8 (100%)	8 (100%)
1990~1999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2000~2009 (7)	7 (100%)	7 (100%)	5 (71.4%)	7 (100%)	7 (100%)
2010~2019 (35)	35 (100%)	35 (100%)	29 (82.9%)	32 (91.4%)	31 (88.6%)
2020~2022 (8)	8 (100%)	8 (100%)	6 (75%)	6 (75%)	8 (100%)
(62)	62 (100%)	62 (100%)	50 (80.6%)	57 (91.9%)	58 (93.5%)

제목과 저자명은 62종 모든 번역서에서 재현되었으며, 번역가명은 50종에서, 출판사명은 57종에서, 부가정보는 58종 표지에서 재현되었다. 각 항목별 의미 재현 양상은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4.1 제목의 의미 재현 양상과 시각적 특성

4.1.1 제목의 유형

제목은 언어기호를 사용하여 62종 전 표지에서 재현되었고, <표 2>와 같이 『1984年』, 『1984년』, 『1984』, 『1984년』에 원제 병기, 『1984』에 원제 병기,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재현되었다.

1972년 <동화출판공사>는 『1984年』으로 번역하였고, 1980년대에는 한자 ‘年’ 대신 한글을 사용하거나 삭제하여 『1984년』, 『1984』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1984년』으로 번역된 수가 『1984』로 번역된

수보다 우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대는 원제를 병기한 경우를 포함하여 『1984년』으로 번역된 수는 3종으로 『1984』로 번역된 32종 대비 크게 줄었고, 2020년대는 『1984년』으로 번역된 제목 없이 모두 『1984』로 번역되었다. 영문 원제 병기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로 2003년 <민음사> 표지를 시작으로 7종 중 3종(약 42.9%)이며, 2010년대는 35종 중 17종(약 48.6%), 2020년대에는 8종 중 2종(25%)이다.

<표 2> 앞표지에 재현된 제목 유형별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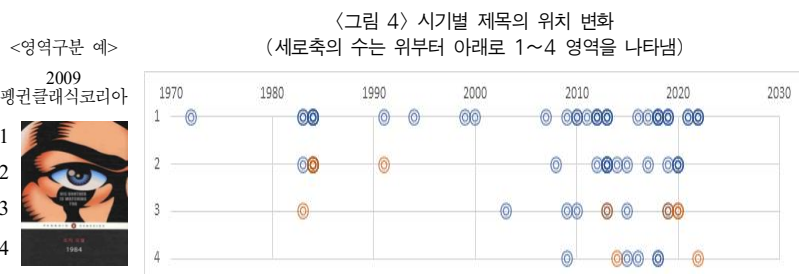
제목유형 발행시기(권수)	1984年	1984년	1984	1984년 + nineteen eighty-four	1984 + nineteen eighty-four
1970~1979 (1)	1 (100%)				
1980~1989 (8)		5 (62.5%)	3 (37.5%)		
1990~1999 (3)		2 (66.7%)	1 (33.3%)		
2000~2009 (7)		3 (42.9%)	1 (14.3%)	1 (14.3%)	2 (28.6%)
2010~2019 (35)		2 (5.7%)	16 (45.7%)	1 (2.9%)	16 (45.7%)
2020~2022 (8)			6 (75%)		2 (25%)
(62)	1 (1.6%)	12 (19.4%)	27 (43.5%)	2 (3.2%)	20 (32.3%)

제목의 가장 큰 기능은 해당 작품의 “정체성(identification)” 부여이며 (Genette and Crampé 1988: 711), 작품을 선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번역 초기에는 작품 속 배경이 되는 1984년이라는 미래 세계의 시기적 정보를 명시화하는 전략으로 의미를 재현하는 경향을 보였고, 언어 사용 면에서는 한자 혼용에서 한글 사용 중심으로, 이후 영어 사용의 대중화라는 시대별 언어 사용의 특성과 변화가 반영되었다. 원제 병기는 언어적인 관점 외에도 번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번역서의 출발점인 원작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목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1.2 제목의 위치

<그림 4>는 표지를 가로로 4등분하여 위부터 아래 방향으로 1영역부터 4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시기별 제목의 위치 변화이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주황색 표시는 두 영역에 제목을 배치한 경우이다. 번역서 62종 표지에서 제목의 위치는 1영역 31종(50%), 2영역 9종(약 14.5%), 3영

역 6종(약 9.7%), 4영역 5종(약 8.1%)이며, 1과 2영역에 걸쳐 배치한 표지 4종(약 6.5%), 2와 3 영역에 걸쳐 배치한 표지 5종(약 8.1%), 2와 4영역 두 곳에 배치한 표지 1종(약 1.6%), 1과 4영역 두 곳에 배치한 표지 1종(약 1.6%)이다.



제목의 위치는 일러스트의 위치와 대비하여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반적인 제목의 위치는 위와 가운데인 1, 2, 3 영역이었고, 일러스트가 사용된 경우 제목 아래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00년대 2003년 <민음사> 표지를 시작으로 일러스트가 제목보다 위 영역에 배치되는 구성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4영역에 제목을 배치하는 표지가 등장하였고, 대표적으로 2009년 <펭귄클래식코리아> 표지에는 3:1의 비율로 일러스트가 위 영역을 넓게 차지하고 4영역에 제목이 작게 배치되었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재현되며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영역이 클수록 관찰자의 시선을 끌게 되므로(Kress and van Leeuwen 2006: 176-177), 언어기호로 재현된 제목보다 작품 내용과 저자 관련 일러스트를 크게 위 영역에 배치하면 시각기호를 통한 의미 재현이 부각되고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된다. 즉, 일러스트를 부각한 표지 구성은 언어기호로 재현된 제목뿐 아니라 작품 내용이나 저자 관련 일러스트가 작품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목의 위치는 일러스트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와 위치는 물론 저자명과 번역가명, 부가정보 등의 위치와도 연계되어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위치와 크기로 구성된다.

4.1.3 제목의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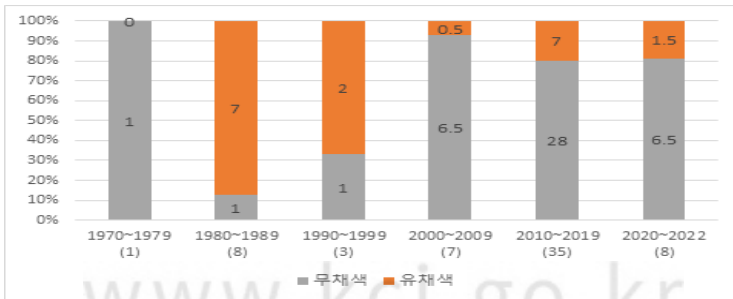
<표 3>은 제목 『1984年』, 『1984년』, 『1984』 글자에 사용된 색의 빈도를 보여준다. 명도와 채도가 다른 유사한 색은 색상환의 대표색에 포함하고, 두 가지 색이 사용된 표지는 각각의 색을 0.5로 빈도에 반영하였다. 번역서 62종 중 제목의 색이 검은색, 흰색 등 무채색인 표지는 44종(약 71%), 유채색인 표지는 18종(약 29%)이었다.

<표 3> 제목 『1984年』, 『1984년』, 『1984』에 사용된 색의 빈도

색	무채색			유채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발행시기(권수)									
1970~1979 (1)	1								
1980~1989 (8)	1			0.5	4	1	0.5		1
1990~1999 (3)	1								2
2000~2009 (7)	3.5		3	0.5					
2010~2019 (35)	21	1	6	2	1	2		2	
2020~2022 (8)	3.5		3	1				0.5	
(62)	31	1	12	4	5	3	0.5	2.5	3
	44 (71%)			22 (29%)					

<그림 5>는 시기별 유채색과 무채색 사용 분포를 보여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유채색 사용이 많은 시기로 특히 1980년대는 87.5%가 유채색을 사용하였고 그 중 빨강, 주황, 노랑 등의 난색 사용이 약 78.6%로 주를 이룬 반면, 1990년대는 약 66.7%가 유채색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한색이 사용되었다.

<그림 5> 제목 『1984年』, 『1984년』, 『1984』에 사용된 무채색과 유채색의 시기별 분포



1980년대 표지 제목에 다수 사용된 주황, 노랑은 일반적으로 밝음과 따뜻함, 유쾌함, 약동, 활력 등을 나타내므로(Goethe 1970) 암울한 사회를 그린 작품 내용과는 대비되는 의미를 재현한다. 이러한 색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작품 내용과의 연계성보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 작품에 대한 해석의 변화 반영, 표지 색과의 대비 효과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무채색 사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00년대는 약 92.9%가 무채색을 사용했고 흰색이 처음으로 제목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색이 사용된 일러스트가 표지 전체 배경으로 사용되면서 대비효과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텍스트 구성 관점에서 전경과 배경, 색의 대비, 선명도 등을 통해 부각(salience)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Kress and van Leeuwen 2006: 177), 제목의 색은 표지 배경색, 일러스트에 사용된 색, 일러스트와의 배치와 연계된 대비를 통해 부각 효과를 부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4.2 저자명과 번역가명의 의미 재현 양상과 시각적 특성

4.2.1 저자명의 의미 재현 양상

저자명은 62종 모두에서 언어기호를 사용하여 재현되었고, 한글명만 표기된 표지 40종(약 64.5%), 한글과 영어명이 표기된 표지 19종(약 30.6%), 영어명만 표기된 표지 3종(약 4.8%)이다. 한글과 영어명이 표기된 표지의 시기별 분포는 1980년대 8종 중 4종(50%), 1990년대 1종 중 1종(100%), 2010년대 35종 중 13종(약 37.1%), 2020년대 8종 중 1종(12.5%)이며, 특히 1980년대는 영어명이 한글명보다 큰 표지 구성이 등장하며 저자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었다. 영어명만 표기된 표지는 2019년과 1종, 2020년 2종으로 원작 초판본 표지 재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제목의 언어 사용과 마찬가지로 저자명에서도 영어 사용의 대중화, 원작과 원저자에 대한 명성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2 번역가명의 의미 재현 양상

번역가명은 62종 중 50종(약 80.6%)에서 언어기호로 재현되었다. 번역가명이 재현되지 않은 표지는 1980년대 8종 중 2종(25%), 2000년대 7종 중 2종(약 28.6%), 2010년대 35종 중 6종(약 17.1%), 2020년대 8종 중 2종(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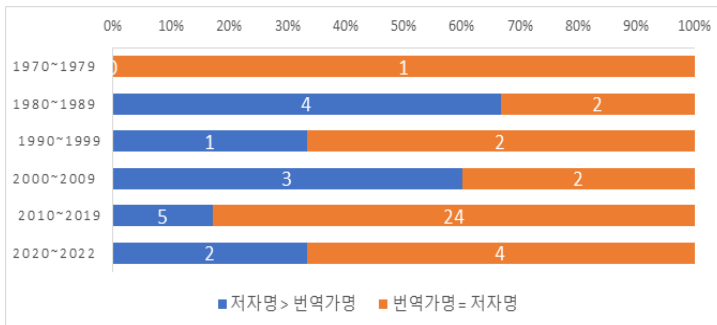
번역가명 재현 유형은 1970년대는 한자 ‘譯(역)’으로, 1980년대는 한자 ‘譯(역)’과 ‘옮김’이 1:1 비율로 사용되었고, 1990년대는 모두 ‘옮김’으로, 2000년대는 어린이를 위한 번역서에서 ‘읽음’으로 그 외는 모두 ‘옮김’으로 재현되었다. 2010년대는 ‘읽음’ 3종, ‘옮김’ 24종, ‘번역’ 1종, ‘편역’ 1종이며, 2020년대는 모두 ‘옮김’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목표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번역을 옮기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3 저자명과 번역가명의 위치 및 크기

저자와 번역가명이 모두 제시된 50종의 위치를 비교하면, 두 정보를 인접하게 배치하거나 분리하여 배치했다. 인접하게 배치한 경우는 48종(96%)으로 저자와 번역가를 나란히 같은 행에 나열한 표지 30종과 행을 바꿔 배치한 표지 18종이며, 독립적인 개체로 분리하여 배치한 경우는 2종(4%)으로 저자와 번역가 사이에 제목이 배치되었다. 텍스트 구성 관점에서 좌우 또는 상하로 배치하면 두 정보에는 집단성과 위계성이 부여되는데, 저자명과 번역가명을 좌우나 상하로 인접하게 배치한 경우나 분리하여 배치한 경우 모두 저자 정보가 번역가 정보보다 선행하였다.

저자명과 번역가명의 상대적인 활자 크기를 비교하면 두 정보가 모두 재현된 50종 중 저자명의 크기가 번역가명의 크기보다 큰 표지는 15종(30%), 동일한 표지는 35종(70%)이었다.

〈그림 6〉 저자명과 번역가명의 상대적 활자 크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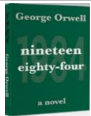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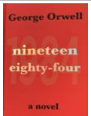
<그림 6>에서 저자명이 번역가명보다 큰 표지의 시기별 분포는 1980년대 6종 중 4종(약 66.7%), 1990년대 3종 중 1종(약 33.3%), 2000년대 5종 중 3종(60%), 2010년대 29종 중 5종(약 17.2%), 2020년대 6종 중 2종(약 33.3%)이었다. 특정 의미를 부각하는 여러 방법 중 크기의 대비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고(Machin and Mayr 2012: 54), 저자의 명성이 높은 경우 활자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Genette 1997: 39),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4년 전후 발행된 번역서에서 저자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출판사명의 의미 재현 양상과 시각적 특성

원작 표지에는 출판사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번역서 표지는 62종 중 57종(약 91.9%)에 재현되었고, 50종(약 80.6%)에서 표지의 아래 부분인 4영역에 재현되었다. 출판사명은 57종 중 56종에서 언어기호로 재현되었는데, 일러스트를 사용한 표지 1종은 2009년 <펍킨클래식코리아>로 출판사를 대표하는 펍킨 로고를 사용하였다. 2014년 <펍킨클래식코리아> 표지는 언어기호와 로고 일러스트를 모두 사용하였다.

출판사명이 제시되지 않은 표지 5종은 2010년대 35종 중 3종(약 8.6%), 2020년대 8종 중 2종(25%)이다. 이 중 3종은 원작의 초판 표지를 재현한 결과인데 2019년 <더스토리> 양장본은 원작 출간 70주년을 기념하여 원작의 색, 글꼴, 구도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1권과 2권으로 구성하였고, 2020년 <코너스톤>은 저자 타계 70주년을 기념한 초판본 리커버 시리즈로 원작 표지와 구도는 같지만 색, 글꼴, 글자의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색의 벨벳 양장본을 발행하였다.

<표 4> 원작 표지를 재현한 번역서 표지 3종

		
2019	2020	2020
더스토리	코너스톤	코너스톤

4.4 부가정보 의미 재현 양상과 시각적 특성

<표 5>는 부가정보 유형별 출현 빈도이며 유형별 재현 양상은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표 5> 앞표지에 제시된 부가정보 유형과 출현 빈도

부가정보유형 발행시기(권수)	작품		저자	번역가	출판
	본문 내 정보	본문 외 정보			
1970~1979 (1)					1 (100%)
1980~1989 (8)	1 (12.5%)	6 (75%)	6 (75%)	1 (12.5%)	2 (25%)
1990~1999 (3)	1 (33.3%)				2 (66.6%)
2000~2009 (7)	7 (100%)				5 (71.4%)
2010~2019 (35)	20 (57.1%)	1 (2.9%)	6 (17.1%)		20 (57.1%)
2020~2022 (8)	6 (75%)				1 (12.5%)
(62)	35 (56.5%)	7 (11.3%)	12 (19.4%)	1 (1.6%)	31 (50%)

4.4.1 작품 관련 부가정보

4.4.1.1 본문 내 정보 의미 재현 양상: 언어기호 사용

인물, 사건, 배경 등 본문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62종 중 35종(약 56.5%)에서 재현되었다. 이 중 8종에서 언어기호를 사용하였는데 7종은 언어기호와 시각기호를 함께 사용하고 1종은 언어기호만을 사용하여 본문 일부를 인용했다. 시기별로는 2000년대 7종 중 3종(약 42.9%), 2010년대 35종 중 4종(약 11.4%), 2020년대 8종 중 1종(12.5%)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첫째,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설 속 표어 내용이 6종 표지에 인용되었다. 이야기 속 가상의 전체주의 국가에는 독재자 빅 브라더의 얼굴과 함께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고 적힌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 있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구는 이 작품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유출 등 현대 사회의 병폐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된다. 2007년과 2009년 <열린책들>, 2009년 <펍킨클래식코리아> 표지에는 원문 그대로인 “BIG BROTHER IS WATCHING YOU”를, 2012년 <교원>, 2019년 <다상출

관>, 2021년 <브라운힐> 표지에는 번역한 문구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로 재현되었다. 둘째, 2013년 <더클래식> 표지에 당의 통제전략 중 하나인 ‘이중사고’를 나타내는 슬로건이 인용되었고, 셋째, 2016년 <아로파>의 표지에 신문, 문서, 서적 등 과거의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수정하여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체제의 전략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인용되었다.

〈표 6〉 앞표지에 언어기호로 재현된 본문 내 정보와 표지

본문 인용 내용	재현 표지
BIG BROTHER IS WATCHING YOU	2007 열린책들 2009 열린책들 2009 팽귄클래식코리아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2012 교원 2019 다상출판 2021 브라운힐
윈스턴이 서 있는 곳에서 겨우 보이는 흰 벽면에는 당의 세 가지 표어가 우아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2013 더클래식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2016 아로파

4.4.1.2 본문 내 정보 의미 재현 양상: 시각기호(일러스트) 사용

일러스트를 사용해 본문 내 정보를 재현한 표지는 1980년대 8종 중 1종(12.5%), 1990년대 3종 중 1종(약 33.3%), 2000년대 7종 중 7종(100%), 2010년대 35종 중 20종(약 57.1%), 2020년대 8종 중 6종(75%)이다. 재현된 의미 유형은 언어기호를 사용한 경우처럼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25종,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 상황, 사건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10종 표지에 사용되었다.

먼저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는 <표 7>과 같이 눈/눈동자, 독재자의 얼굴/포스터, 감시 카메라를 통해 재현되었고, 크기, 배치, 양태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부가적인 의미가 재현된다. 크레스와 반 류엔(Kress and van Leeuwen 2006)의 시각문법에 따르면 시각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대상의 의미를 표상하는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참여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텍스트가 생산된 맥락과 연계되도록 구성하는 텍스트적 메타기

능(textual metafunction)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생성한다. ‘보다’라는 관념적 의미를 재현한 25종 표지 중 독자를 향한 응시라는 대인적 의미가 재현된 표지는 8종이다. 특히 2003년 <민음사>, 2009년 <펭귄클래식코리아>, 2013 <더클래식>, 2016 <북스데이>, 2021 <소담출판사> 표지에 사용된 눈 일러스트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독자와의 관계 맺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인적 기능을 재현하고 있으며 위 또는 가운데 영역에 배치하여 그 효과를 강화하였다. <더클래식>과 <소담출판사>에 사용된 눈 일러스트는 실제성, 즉 양태(modality)의 정도가 높아 실제 사람이 지켜보는 효과를 준다. 반면 2018년 <문예출판사>, 2019년 <연암서가> 표지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실제성의 정도가 낮아 지켜보는 효과는 약화된다.

<표 7> 눈, 독재자, 감시카메라 일러스트를 통해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재현한 표지

본문 내용	시각 기호(일러스트)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눈/눈동자 (17종) - 얼굴, 흉상, 인물 포스터 (7종) - 감시카메라 (1종)
눈/눈동자: 17종	
독재자 얼굴, 흉상, 포스터: 7종	
감시카메라: 1종	

독재자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재현한 표지 중 2012년 <을유문화사> 표지는 정치가였던 스탈린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독재 권력과 독재자를 재현하였고, 독자에게 스탈린의 통치라는 역사적 사실을 연상하게 하며 소설 속 내용의 현실화를 암시하는 효과를 부여하였다. 또한, 2010년 <현대문화센터> 표지에서는 감시카메라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곳곳의 감시카메라를 연상하게 하며 사회 문제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부각했다.

다음으로, 이야기 속 인물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표지와 그 내용을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이야기 속 인물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재현한 표지

1	2	3	4	5	6	7	8	9	10
1983	2011	2013	2020	2008	2019	2013	2017	2021	2018
중원사	부북스	삼성출판사	새움	미래엔아이세움	미래엔아이세움	온스토리	책만드는집	브라운힐	더디
본문 내용			시각 기호(일러스트)				재현 표지		
독재 체제 하에서 고뇌하는 인물			- 두 손으로 감싼 얼굴				- 1983 중원사		
			- 화가 몽크의 ‘절규’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인물: 일기를 쓰고 사랑을 추구			- 의자에 앉아 무릎에 놓인 공책에 쓰고 있는 사람				- 2013 삼성출판사		
			- 화가 몽크의 ‘키스’						
독재 체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인물			- 줄에 묶여 조종당하는 사람들				- 2008 대한교과서		
			- 전기 고문당하는 사람						
독재 체제 하에서 인간의 본성과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작은 존재인 인물			- 거대한 미로 속 작은 사람				- 2013 온스토리		
			- 얼굴 없는 사람						
			- 단순화된 형체의 사람						
							- 2017 책만드는집 2021 브라운힐		
							- 2018 더디		

1번과 2번 표지는 빈뇌하는 인간, 3번과 4번은 일기를 쓰는 주인공 윈스턴의 모습과 소설 속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재현했는데, 2011년 <부북스>와 2020년 <새움> 표지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몽크(Edvard Munch)의 작품 ‘절규(The Scream)’와 ‘키스(The Kiss)’를 통해 의미를

재현하였다. 5번과 6번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만화 형식을 통해 재현하였는데, 조정하는 줄에 매달려 통제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고문 장면을 재현하였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표지로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상 독자가 표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7번은 거대한 미로 안의 작은 인간, 8~10번 표지는 얼굴 없는 사람과 단순화된 사람의 형상을 통해 인간성 상실, 정체성 상실이라는 상실감과 획일화된 인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4.4.1.3 본문 외 정보 재현 양상

작품과 관련된 본문 외 정보는 언어기호를 통해 62종 중 7종(약 11.3%)에 재현되었고, 시기별 분포는 1980년대 8종 중 6종, 2010년대 35종 중 1종이며, 내용은 <표 9>와 같이 장르, 수상(受賞), 지명도, 평론, 해설 등이다.

〈표 9〉 본문 외 작품 관련 부가정보 재현 표지

	발행시기	출판사	부가정보 내용	유형
1	1983	삼연사	반유토피아적 정치소설	장르
2	1983	지문사	파티잔레뷰賞	수상
3	1984	문성당	반유토피아적 정치소설	장르
4	1984	민들레	62개 국어로 번역된 최강의 충격!	지명도
5	1984	지혜	문화방송국 방송, 세계적으로 돌풍을 몰고 온 조지 오웰의 예언!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	지명도
6	1984	보성출판사	《1984년》은 전체주의와 개인 감시, 이념의 폭력과 관료주의, 관(官)에 의한 역사 왜곡과 조작, 심리적 충격과 자존심의 손상, 사랑·종교의 자유와 인간성의 말살등을 위해 인류가 고안해 낸 모든 것을 가리키는 암호가 되었다. 오웰이 예견한 것들 중에는 이미 시작되었거나 일어났으며, 더 많은 부분이 그의 예견을 능가하고 있다. 현실의 어떤 일들은 그 예견보다 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1984년》을 암호라고 말한다.	해설
7	2010	누멘	인간의 삶이 전체주의에 지배되는 미래 세계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	장르

1983년 <삼연사>, 1984년 <문성당>, 2010년 <누멘> 표지에 반유토피아적 정치소설, 디스토피아 소설이라는 장르 정보, 1983년 <지문사> 표지에 “파티잔레뷰賞”이라는 수상 내용, 1984년 <민들레>, 1984년 <지혜> 표지에 작품의 인

기와 지명도 관련 정보가 제시되었고, 1984년 <보성출판사> 표지에는 약 50단어 분량의 작품 해설 정보가 제시되었다.

작품과 관련된 본문 외 정보 제공은 1980년대 표지에서 두드러졌는데, 특정 시기에 번역서가 다수 출판된 상황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여 선택하는 잠재 독자의 의사결정 과정(Leemans and Stokmans 1992)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당시 책표지는 작품의 명성, 내용이나 장르 등 부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본문 외 정보 제공은 크게 감소했는데 작품에 대한 명성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정보 획득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표지에서 본문 외 정보가 독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4.2 저자 관련 부가정보

저자 관련 부가정보가 제시된 표지는 62종 중 12종(약 19.4%)이고, <그림 7>과 같이 저자의 그림이나 사진 등 일러스트를 사용한 표지 11종(1~11번)과 언어기호를 사용한 표지 1종(12번)이다.

<그림 7> 저자 관련 부가정보를 재현한 표지

1	2	3	4	5	6
					
1983	1984	1984	2010	2018	2018
지문사	민들레	보성출판사	생각의나무	생각뿔	누멘
7	8	9	10	11	12
					
1984	2016	1984	1984	2018	2013
두풍	아로과	문성당	지혜	민음사	온스토리

저자 관련 일러스트를 배치한 11종 표지 중 6종은 사진(1~6번), 2종은 사실화에 가까운 그림(7~8번), 3종은 단순화한 만화 그림(9~11번)을 사용하면서 실

제성, 즉 양태의 차이를 보였다. 언어기호를 사용한 2013년 <온스토리>는 저자의 영문명 옆에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출생과 사망 연도(George Orwell 1903-1950)를 제시했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 8종 중 6종(75%), 2010년대 35종 중 6종(약 17.1%)으로 1980년대 비율이 특히 높았고, 일러스트의 크기도 다른 시기 대비 컸는데 이는 작품의 배경이자 제목인 1984년을 맞아 저자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4.4.3 번역가 관련 부가정보

번역가 관련 부가정보가 제시된 표지는 62종 중 1종(약 1.6%)으로 저자 관련 정보보다 극히 적었다. 1984년 <보성출판사> 표지에 “서울대 교수 이현복 옮김”이라는 번역가 직위 정보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번역 품질의 신뢰도를 높여 같은 해 발행된 다수의 번역서 중에서 독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4.4.4 출판 관련 부가정보

출판 관련 부가정보는 62종 중 31종(50%)에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정보 유형은 컬렉션, 특별 에디션 등 총서(series) 관련 문구로 29종에 제시되었고, 초판, 완역판 등 판본 관련 문구가 2종에 제시되었다. 판본 관련 정보는 1983년 <중원사> 표지에서 “신판”, 1984년 <두풍> 표지에서 “완역판”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8>은 총서 정보를 재현한 표지의 시기별 분포이며, 1970년대 1종 중 1종, 1990년대 3종 중 2종(약 66.7%), 2000년대 7종 중 5종(약 71.4%), 2010년대 35종 중 20종(약 57.1%), 2020년대 8종 중 1종(12.5%)이다. 총서 정보가 없는 1980년대는 1984년 전후로 다수의 단행본이 출간된 시기이다.

<그림 8> 총서 정보를 재현한 표지의 시기별 분포



표지 구성 관점에서 총서에 속한 모든 작품의 표지에 언어기호와 일러스트

의 배치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일러스트도 통일하는 경우가 있고, 언어기호와 일러스트의 배치는 동일하지만 작품마다 다른 일러스트를 배치하기도 한다. 총서 정보를 제공한 29종 중 22종(약 75.9%) 표지는 동일한 구도와 형식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러스트 또는 배경색에 변화를 주었고, 5종(약 17.2%) 표지는 통일성 없이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2종(약 6.9%)은 총서에 속한 모든 작품에 동일한 구도와 동일한 일러스트를 사용하였다. 모든 총서 작품의 표지를 동일하게 발행하는 경우 해당 작가나 작품의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는 전략보다는 해당 출판사가 발행한 총서에 속한다는 출판 관련 정보와 출판사의 이미지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서에 속하지만 해당 정보를 재현하지 않은 표지를 포함하면, 2000년대 7종 모두 총서에 속하며, 2010년대는 35종 중 29종(약 82.9%), 2020년대 8종 중 5종(62.5%), 즉 총 62종 중 44종이 총서에 속한다. 이처럼 소설 『1984』는 202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컬렉션, 세계명작, 세계문학선, 세계문학전집, 에디터스 컬렉션, 초판본 컬렉션 등의 다양한 시리즈에 선정되어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선택 받고 있으며 명작, 고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 번역서 62종의 앞표지 구성 항목을 제목, 저자명, 번역가명, 출판사명, 부가정보로 분류하여 시기별 의미 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번역서의 표지는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통해 목표 문화권에서 새로운 의미가 재현되는 공간으로 번역서 표지 구성은 원작과 원천 문화가 목표 문화권에서 수용된 결과이며, 발행 당시 사회적 특징, 출판사의 전략, 대상 독자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작품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제목의 의미 재현 방식은 한자, 한글, 영어 원제 병기 순으로 변화하면서 당시 언어사용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텍스트 구성 관점에서 제목의 위치는 위와 가운데 영역에 주로 배치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일러스트를 위 영역에 배치하고 제목을 아래 영역에 배치하여 시각기호의

의미 재현이 부각되는 구성이 시작되었다. 작품과 저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목뿐 아니라 작품이나 저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러스트가 작품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주요 장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저자명은 62종 모든 표지에서 재현되었으나 번역가명은 50종에서 재현되었다. 저자명과 번역가명이 모두 제시된 경우 텍스트 구성 관점에서 저자명과 번역가명은 48종에서 좌우 또는 상하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원작과 번역서의 저자라는 집단성이 부여되었고 모든 경우 저자명이 번역가명보다 선행하는 위계성이 부여되었다. 글자의 크기는 저자명과 번역가명이 동일한 표지는 35종, 저자명이 번역가명보다 큰 표지가 15종으로 위치와 크기 면에서 저자가 번역가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와 2000년대 표지에서 부각되었고, 제목 등 다른 항목 대비 저자명이 가장 큰 표지도 1종 확인할 수 있었다.

출판사명은 62종 중 57종에서 재현되었는데 출판사명을 제시하지 않은 표지 5종 중 3종은 원작 출간 70주년, 저자 타계 70주년 등 저자와 작품 관련 이슈를 반영하면서 원작 표지 재현을 목적으로 한 결과였다. 나머지 2종은 분석 대상이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출판사의 규모나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출판사명 이외의 항목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부가정보는 작품, 저자, 번역가, 출판 관련 부가정보로 분류하였다. 작품 관련 부가정보는 장르, 수상 내역, 해설 등 본문 외 정보가 언어기호를 통해 재현되었고, 본문 내 정보는 본문 텍스트 일부를 인용하는 언어기호 사용과 본문 내용을 상기시키는 일러스트 사용을 통해 재현되었는데 특히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본문의 포스터 내용을 재현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내용은 작품 속 배경을 넘어 현대사회의 병폐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만큼 널리 인식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부각되거나 재해석되기도 하는데, <괘권클래식코리아> 출판사 리뷰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는 이 작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하였다.

저자 관련 부가정보는 저자의 사진이나 그림 등 일러스트와 언어기호를 사용해 12종에서 재현되었는데 『동물농장』 등 이전 작품으로 이미 알려진 작가의 인지도를 독자에게 부각하는 효과가 있으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4년에 즈음하여 발행된 1980년대 번역서 표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번역가 관련 부

가정보는 1980년대 1종에서 제공되었는데 번역가의 직위를 제시하여 번역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출판 관련 부가정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총서 관련 정보로 29종에서 재현되었고,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총서에 속하는 표지를 포함하면 44종이 총서에 속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출판사의 총서에 속해 발행되는 것은 목표 문화권에서 작품의 명성과 인지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당 작품이 명작, 고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책표지에 재현된 의미 항목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인 견해가 기반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언어기호나 시각기호의 크기, 모양, 위치에 대해 정확한 수치 기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내에서 발행된 전체 번역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등록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번역서가 있을 수 있으며, 전자책 표지를 제외한 종이책으로 발행된 표지만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지 못했다. 구성 항목의 의미 재현 양상을 기술하면서 표지 구성 주체의 의도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의미 항목 간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앞표지의 구성 항목 중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 저자와 작품의 명성과 인지도, 작품 내용, 저자의 전기(傳記), 작품과 저자에 대한 평가, 작품의 배경과 실제 사회를 연계시키는 등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대상 독자, 한글 맞춤법 규정 등 목표 문화권의 언어 사용 변화 등이 표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책표지는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의 다양한 구성 방법을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를 맺는 대인적 기능과 특정 정보를 부각하고 강조하는 텍스트적 기능을 재현하며 잠재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포함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마승혜, 김순영 (2022) 「번역서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및 평가 -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앞표지와 주제 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번역학연구』 23(3): 183-209.
- 박윤우, 이상빈 (2023) 「페리텍스트(peritext)의 통시적 변화 고찰 - 번역서 『제2의 성』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7(2): 47-69.
- 성승은, 최소영, 김보경 (2022)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북한 작가 반디의 「고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일본과 대만 번역서 겉텍스트 고찰」, 『번역학연구』 23(3): 35-62.
- 안미영 (2012) 「해방이후 전체주의와 조지 오웰 소설의 오독」, 『민족문학사연구』 49: 339-374.
- 이강선 (2019)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20(2): 57-79.
- 이상빈 (2021)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여성/페미니즘 관련 번역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변화: 표지 이미지와 책제목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5-160.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겉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문에서의 겉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Alvstad, Cecilia (2012) 'The Strategic Moves of Paratexts: World Literature Through Swedish Eyes', *Translation Studies* 5(1): 78-94.
- Batchelor, Kathryn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Routledge.
- d'Astous, Alain, Francois Colbert and Imene Mbarek (2006) 'Factors Influencing Readers Interest in New Book Releases: An Experimental Study', *Poetics* 34(2): 134-147, DOI:10.1016/j.poetic.2005.12.001.
- Dixon, Peter and Marisa Bortolussi (2005) 'Approach and Selection of Popular Narrative Genre',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23(1): 3-17, DOI:

10.2190/JA6U-5APV-NERE-PYGC.

Dixon, Peter, Marisa Bortolussi and Blaine Mullins (2015) 'Judging a Book by Its Cover', *Scientific Study of Literature* 5(1): 23-48, DOI: 10.1075/ssol.5.1.02dix.

Genette, Gérard (1987/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P.

Genette, Gérard (1988)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Title in Literature', Translated by Bernard Crampé, *Critical Inquiry* 14(4): 692-720.

Goethe, Johann Wolfgang (1970) *Theory of Colours*, Translated by Charles Lock Eastlake, Cambridge, MA: MIT Press.

Kress, Gunther and Theodore Jacob van Leeuwen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Leemans, Hein and Mia Stokmans (1992) 'A Descriptive Model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Buyers of Book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6(2): 25-50.

Li, Long, Xi Li and Jun Miao (2019) 'A Translated Volume and its Many Covers: A Multimod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deology', *Social Semiotics* 29(2): 261-278.

Machin, David and Andrea Mayr (2012) *How to Do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 Multimodal Introduction*, London: SAGE.

Maclean, Marie (1991) 'Pretexts and Paratexts: The Art of the Peripheral', *New Literary History* 22(2): 273-279.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proxy.dongguk.edu/stable/469038>.

Mossop, Brian (2018) 'Judging a Translation by Its Cover', *The Translator* 24(1): 1-16. DOI: 10.1080/13556509.2017.1287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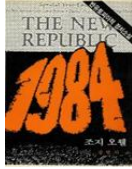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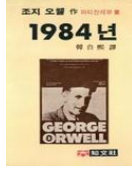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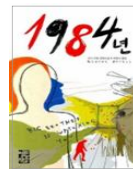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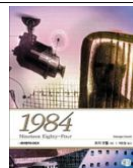
O'Sullivan, Carol (2005) 'Translation, Pseudotranslation and Paratext: The Presentation of Contemporary Crime Fiction Set in Italy', *EnterText Supplement* 4(3): 6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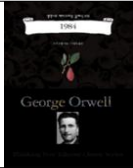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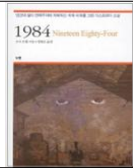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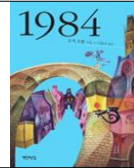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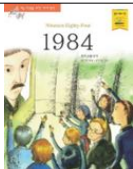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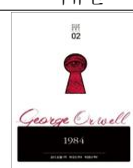




Pellatt, Valerie (2013)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Salmani, Bahloul and Zahra Eghtesadi (2015) 'An Intersemiotic Approach towards Translation of Cover Designs in Retranslated Classic Novel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5(6): 1185-1191, DOI: <http://dx.doi.org/10.17507/tpls.0506.09>.
- Sonzogni, Marco (2011) *Re-covered Rose: A Case Study in Book Cover Design as Intersemiotic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Tahir Gürçağlar, Şehnaz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Theo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St. Jerome, 44-60.
- Torres-Simón, Esther (2021) 'Evolution of Images of Korea in the Paratexts to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Translet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5: 251-272.
- Watts, Richard (2000) 'Translating Culture: Reading the Paratexts of Aimé Césaire's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13(2): 29-46. DOI: 10.7202/037410ar.

부록

〈분석대상 62종 번역서의 발행 시기, 출판사, 번역가, 앞표지〉

1972	1983	1983	1983	1984
동화출판공사	삼연사	지문사	중원사	문성당
이군철	강연호	한태희	김병익	김정숙
				
1984	1984	1984	1984	1991
민들레	두풍	보성출판사	지혜	을지출판사
김종현	은여진	이현복	김일엽	한바람
				
1994	1999	2000	2003	2007
청목사	문예출판사	청목사	민음사	열린책들
김순녀	김병익	김순녀	정희성	박경서
				
2008	2009	2009	2009	2010
미래엔이씨세움	문학동네	펄컨클래식코리아	열린책들	현대문화센터
우현옥 엮음	김기혁	이기환	박경서	이은경
				

2010	2010	2011	2012	2012
생각의 나무 이경호	누멘 정병조	부복스 김설자	을유문화사 권진아	책만드는집 이정아
				
2012	2012	2013	2013	2013
지경사 김은빈 엮음	(주)교원 이금희 엮음	북로드 북트랜스	북로드 북트랜스	더클래식 정영수
				
2013	2013	2013	2013	2013
1984(일구팔사) 최윤영	삼성출판사 최인자	온스토리 박상곤	문학마을 김진남	보물창고 전하림
				
2014	2015	2015	2015	2016
펭귄클래식코리아 이기한	삼성출판사 최인자	신원문화사 이기선	코너스톤 박유진	아로파 임종기
				
2016	2017	2017	2018	2018
북스테이:LanCom 더페이지	비꽃 김옥수	책만드는집 이정아	문예출판사 김병익	민음사 정희성
				

2018	2018	2018	2018	2019
더디	생각빨	자화상	누멘	미래엔아이세움
임소연	안영준	하소연	정병조	우현옥 위음
2019	2019	2019	2019	2020
연암서가	별글	다상출판	더스토리	코너스톤
이종인	박준형	뉴트랜스레이션	정영수	박유진
2020	2020	2021	2021	2022
코너스톤	새움	브라운 힐	소담출판사	문예출판사
박유진	이정서	김지영	한기찬	김승욱
2022	2022			
문예출판사	문학과 지성사			
김승욱	김병익			

[Abstract]

**An Analysis of Front Cover Composition of Korean Translations
of George Orwell's Novel *Nineteen Eighty Four***

Kyonghee Lee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ront cover composition of translated books, focusing on the title, the name of the author, the name of the translator, the name of the publisher and other additional information. The study examined the cover composition of 62 Korean translations of George Orwell's novel *Nineteen Eighty Four* published from the 1970s to the 2020s. The front cover of a translated book is a textual space where new meanings are represented in the target cultur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ver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publication. The study shows that a variety of factors can influence the front cover composition of the classic literatur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use at the time of publication in the target culture; a reputation of the author and the work; the author's biography; a story of the work; marketing strategies of the publishers; cover composition strategies of foreign publishers; target audiences; an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work.

Keywords: composition of book covers, diachronic analysis, George Orwell, paratext, verbal sign and visual sign

주제어: 책표지 구성, 통시적 분석, 조지 오웰, 파라텍스트, 언어기호와 시각기호

이경희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강의초빙교수

lee0246@daum.net

관심 분야: 문학번역, 통번역교육, 멀티모달리티

논문 투고: 2023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